

물관리로 선진농업 앞당긴다

4 저수지 수변개발

테마형 문화·휴식공간으로 탈바꿈

매년 4월 중순이면 화순군 화순읍 세량제에는 전국에서 많은 사진작가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만개한 산벚꽃과 연초록의 신록이 어우러져 잔잔한 수면에 반영되는 그림 같은 비경을 앵글에 담기 위해서다. 산벚꽃이 절정에 이를 때는 저수지 독에 수백 명의 사진작가들이 열을 이뤄 경쟁적으로 촬영에 몰두한다. 이곳은 단순히 농업용 저수지가 아니라 이른 봄 반드시 찾아야 하는 사진명소가 됐다. 수변공간 환경을 크게 훼손시키지 않고도 도시민과 농·어촌 주민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을까?



소규모 농업용 저수지인 화순 세량제는 매년 봄 전국 사진작가들이 손꼽는 볼 풍경 일번지이다. 사진작가들이 만개한 산벚꽃과 물이 된 새벽풍경을 앵글에 담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잠재적 자원인 저수지=한국농어촌공사는 '저수지 수변개발사업'을 통해 농업용 저수지를 새로운 문화공간이자, 휴식처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농·어촌 저수지 주변에 공원화 및 오도캠핑장 등 휴양·레저시설을 조성해 농·어촌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수변공

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적 자원이기도 하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특별법을 바탕으로 우선 순창 팔덕 저수지 등 3개의 시범지구를 선정해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순창 팔덕저수지의 경우 사업비



광양 백운제 농·어촌 테마공원 조감도.

오토 캠핑장·온천·썰매장·수상 레포츠 등 시설
일자리 창출·도시자본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0년 6월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 지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비롯됐다. 이를 통해 유지관리 재원의 안정적 확보방안과 저수지 주변의 난 개발을 방지하는 한편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관광자원화 등 농·어촌의 소득원 창출도 모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저수지 등 농업 기반시설은 많은 제한과 규제로 인해 농·어촌의 아름다운 경관을 활용한 관광단지 등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단순 농업용수 공급기능과 단편적 레포츠 기능으로만 이용돼 왔다. 하지만 농·어촌지역의 수변공간은 주민에게는 일상적인 생활공간으로서 쾌적성이나 삶의 질을 보장해 주며, 도시민에게는 농·어촌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490억원을 들여 강천산과 온천을 테마로 한 온천·스파, 눈·잔디 썰매장 등 시설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어촌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도시자본 유치와 지역 특화사업 개발 및 관광자원화·농업의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 백운제에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도내에서는 광주시 북구 생룡동 대야제와 담양군 용면 담양호 수변개발 사업을 실시, 수상레포츠 시설이 들어섰다. 전남지역본부의 광양시 봉강면 봉당리에 위치한 백운제를 대상으로 사업여건 조성 후 수변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59ha 면적에 농·어촌 테마공원 등을 오는 2015년까지 조성한 후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민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농·어촌 테마공원은 지명 광양(光陽)에서 따온 '햇살'을 테마로 한 공간을 기본으로 매실 등 지역

농특산물을 소재로 한 복합문화 공간과 도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관광명소를 조성할 예정이다.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사업비 125억5000여만원을 투입해 백운저수지 일원에 4만8000㎡ 규모의 초록기운 공원을 비롯해 다목적 운동공간·전망대·농업체험 학습장·수상레포츠 공간·어린이 놀이동산 등이 들어서게 된다. 농업용 저수지 개발사업시 공적인 자원인 저수지에 민간자본의 참여로 수익성에 우선한 개발사업으로 치우쳐 개발된다면 향후 또 다른 문제들이 야기될 것으로 예견된다. 이에 따라 저수지의 개별적인 개발보다는 지역의 어메니티(amenity) =어떤 장소나 기후 등에서 느끼는 쾌적함을 일컫는 용어) 자원과 연계해 지역의 종합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사업구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또한 농업·농촌 테마공원과 권역단위 종합 정비사업 등의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된 지역의 복합적 특성이 반영된 테마로 개발해야 하고, 나아가 인근 지역과 연계해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계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공사는 지난 7월 장성군과 장성호 수변개발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앞으로 공동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장성호 주변에 연수·휴양, 레포츠를 아우르는 교육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형은 전남지역 본부장은 "도내 농·어촌에는 잠재력 있고 저평가된 다양한 어메니티 자원들이 다수 산재돼 있다"며 "앞으로 지역 수변공간의 잠재력과 가치를 발굴해 새로운 자원으로 탈바꿈 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바다 쇠오리 보존위해 외국 석학들 한자리에

24~25일 목포서 '제6회 국제 철새 심포지엄'



바다 쇠오리

한국을 비롯해 일본, 캐나다, 미국 등 바다새 전문가들이 목포에 모인다. 신안군과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공동으로 '바다 쇠오리류의 서식현황과 보존노력'이란 주제로 24~25 이틀간 목포 신안비치호텔과 번식지에서 '제6회 국제 철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일본, 미국, 캐나다 등 10여 명의 외국 석학이 참가할 심포지엄에서는 빨쇠오리류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

하고 보호 방안을 논의한다. 첫날 전문가 발표와 토론에 이어 25일에는 바다제비, 습새, 갈새 등의 번식지인 신안군 칠발도를 둘러본다. 빨쇠오리를 비롯한 해양성 조류 대부분은 사람의 접근이 힘든 무인도에 서식해 조사 자체가 어려워 생태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빨쇠오리는 국제적 멸종 위기종(IUCN 취약종)이며, 전 세계 잔존 개체 수가 1만 개체 미만으로 추정된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한편 빨쇠오리 등 바다새 집단 번식지가 있는 신안군과 일본의 미야자키현 가도가와초는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바다새 보전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계획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세계 한인 여성지도자들 여수 찾는다

28일 '한민족 여성네트워크' 기후변화 대응 논의

세계 33개국에서 활동하는 한인 여성지도자 228명이 여수를 찾는다. 올해 12번째를 맞는 '세계 한민족 여성네트워크'가 28일 여수 엠블호텔에서 개막, 국내 여성지도자 192명 등 총 420명이 참가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글로벌 한민족 여성'이라는 슬로건으로 한민족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논의를 펼친다. 여성가족부와 전남도, 여수시가 공동 주최해 4일간 열리는 이번 행사

는 그동안 서울과 인천·부산·울산 등 광역시에서 개최했으나 지방 기초단체로는 최초로 여수시가 개최하게 됐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인 최초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인 정미령씨, 프랑스 베르사유 미술대학 관화학과 종신 학과장 김명남씨, 미LA검찰청 검사 박광현씨 등 거주국내 주류사회에서 당당하게 활동하는 해외동포 여성이 참가한다. <동부취재본부=임택기자 mtim@

특히 여수·순천 지역출신으로 필리핀에서 의류업을 하는 비존어페일 대표 장공순씨와 여수의 맛으로 필리핀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바다횟집 대표 김영희씨도 참가해 우의를 다진다. 29일 열리는 개회식에 앞서 28일에는 환영행사와 해외지역 담당관 사업계획보고 및 토론회가 열리며,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해외거주 참가자를 대상으로 순천, 광양 등 여수 인근지역을 둘러보며 남해안 관광지 원도 홍보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영산강 Ⅲ지구 간척농지, 한국형 쌀생산 롤모델 '눈길'

영산강 Ⅲ지구 대규모 간척농지가 한국형 쌀(Rice)생산 롤모델로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단장 안순섭)에 따르면 23일 발매스 베탈파 세페리노 아드리안 주한 파라과이 대사 등 관계자 10여명이 영산강 Ⅲ지구 간척농지를 찾았다. 영산강사업단은 ▲영산강Ⅲ지구 사업현황 ▲간척 사업을 통한 수자원확보 ▲관광개발 및 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농촌경제활성화 등 영산강사업 효과에 대해 브리핑했다. <사진> 이들은 1만2500ha에 달하는 영



산강 Ⅲ지구 대규모 쌀재배단지 등을 둘러보았으며, 한국 농어촌공사의 영농 규모화사업·농지연금 사업 등 농지은행 사업과 대규모 간척 농지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체계적인 관계시설(농업기술력)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파라과이 대사는 지역 가공시설과 비농사 이모작 재배기술 등 수출촉진 및 교두보 확보를 위해 국내 비농사 기술, 미국 종합처리장(RPC)과 농산물 제조 가공시설 등을 중심으로 현장 투어를 실시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SINCE 1982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봉사 **OFF SALE**

www.kjhr.com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HANSATON) 정품만 취급합니다.

본점 062) 227-9940 총장점 062) 227-9970
 목포점 061) 262-9200 장흥점 080) 222-9975
 서울점 02) 765-9940 순천점 061) 752-9940

단롭필로 라텍스 침대 150평

세계최고 수면과학 단롭필로 Duniopillo
고객님의 매트리스는 아래와 같습니까?

머리 어깨 척추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다리
5% 15% 60% 15% 5%

수면시 힘의 분포도

신상품 기능침대 통가족 소파 & 안락의자

199만원 85만원

직수입 이태리 가구 200평

홍스페이스 **신상품 소파 입고!** 쇼핑몰 www.hong79.com (홍친구닷컴)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동구청·장동도터리) **가구빌딩 400평 / 매트리스 체험관 오픈!** ☎ 1899-0240

홍스페이스 SPACE